

##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조리전공 대학생을 중심으로 -

서 경 화<sup>†</sup>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

##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Focused on Culinary Major Students -

Kyung-Hwa Seo<sup>†</sup>

*School of Hotel Foodservice and Culinary Arts, Ulsan College*

###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to investigat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related to self-leadership among students major in culinary area.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employed using SPSS 16.0 Version statistical package program, and various results were discovered. First, all the subfactors of self-leadership factors (behavior focused, natural reward, and constructive thought strategy) had a positive effect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factors (occupational information, goal setting, career planning, problem solving, self-appraisal). Second, all the factors of self-leadership factors (behavior focused, natural reward and constructive thought strategy) had a positive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information search activity, goal achievement activity). As a result, the study confirmed that strengthening of self-leadership for culinary major college/university students is important predictor for development with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eywords: self-leadership,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ulinary major students

### I. 서 론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는 과정은 한 개인의 생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교육적 경험 중의 하나이다(Han, 2011). 특히, 대학생 시기는 학교에서 일의 세계로 옮겨가기 위해 준비를 하는 현실적 단계이며, 구체적인 미래의 진로를 선택하기 위한 준비시기이다(Lee & Kim, 2013). 따라서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은 진학이나 취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탐색하고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행동을 포함하여, 원활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Joo et al., 2015), 이는 조리전공 대학생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은 학생들의 보다 안정적인 진로 결정과 선택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통계청(www.kostat.go.kr)의 2016년 연간 고용동향 보고서에서 20대(20~29세)의 고용률이 전년 대비 0.4% 상승,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4.5% 상승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9월 고용노동부(www.moel.go.kr)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숙박 및 음식점업 산업의 이직률은 전년 대비 9.3% 증가되어 다양한 산업 중 이직률이 높은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해 볼 때, 대학생들은 직업세계에 대한 명확한 통찰을 통하여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어가는 직업세계의 다양화, 세분화, 전문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Lee & Kim, 2012). 즉, 조리전공 대학생들은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진로목표를 결정한 후,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에 적합하도록 자발적으로 준비하며 합리적인

<sup>†</sup> Corresponding author: 서경화, khseo@uc.ac.kr,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01,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

의사결정과 문제해결능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또한, 숙박 및 음식점업 산업은 고용률뿐 아니라, 이직률 상승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대학은 조리전공 대학생들의 이직률 감소를 위한 새로운 진로교육의 목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셀프리더십은 과업수행을 위해 스스로의 사고와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 동기부여 하는 자기주도적 성향에 기반 한 리더십 발휘를 말한다(Yang & Song, 2015). 일반적으로 리더십은 지정된 리더가 팀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지만, 최근에는 모든 조직 구성원이 스스로 리더십을 발휘하여 주도적으로 업무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직원의 권한을 부여하여 업무 전반에 리더십을 분배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Pearce & Manz, 2005).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개발은 개인의 대학생활 과정 속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높은 수준의 독립성과 자율성 그리고 책임감을 지닌 능력을 함양시키며, 올바른 진로설계와 취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대처하며, 성숙한 개인과 사회인으로 성장시킨다(Lee & Kim, 2012). 이처럼 성공적인 학업 및 진로 수행을 위해 노력하려는 대학생에게 필수적인 요소인 셀프리더십은 대학생들의 진로 성공과 대학생활 만족을 넘어 개인 삶의 긍정성 회복에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Jeong, 2010).

최근 연구자들은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역량이 중요함을 인지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을 찾고자 하였다. 특히, 셀프리더십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더불어 사회인지 이론 내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다고 하였다(Kim & Jyung, 2012). 진로와 관련된 자기효능감은 자기효능감의 행동에 언력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진로와 관련된 행동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이다(Lee & Kim, 2010). 즉, 대학생들은 자신이 결정한 진로선택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이뤄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Bae & Sung, 2016), 이는 셀프리더십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Kang, 2015; Kim & Jyung, 2012; Lee & Choi, 2015). 또한 셀프리더십은 올바른 진로결정 이후, 목표달성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준비행동으로 발전되기 위한 중요한 선행변인임을 강조하고 있다(Choi & Joo, 2016; Jang & Moon, 2016; Lee & Hong, 2013; Yang & Song, 2015).

그러나 조리전공 대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연구는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장벽,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진로선택유형 등의 변인들과 관계 검증을 위한 노력이 대부분이었다(Kim & Lee, 2011; Kim & Yoon, 2016; Park & Woo, 2015; Seo,

2016). 일부 셀프리더십에 관한 연구로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의식 수준의 이해와 차이검증에 관한 기초 연구(Seo et al., 2016)만 진행되었을 뿐, 진로선택에 있어 셀프리더십과 관련된 변인들과의 영향 관계에 대한 학문적 연구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라 볼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앞선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조리전공 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과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여, 대학의 진로 목표와 지도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함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강화시켜 성공적인 사회인으로 정착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차별화된 전략적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자신의 행동을 관리하기 위해 스스로를 통제하고, 자신의 긍정적인 성과를 지향하기 위해 건설적으로 사고하며, 과업에서 스스로 즐거움을 찾음으로써 자신의 셀프리더십 효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Song, 2011). 이러한 셀프리더십은 리더십을 발휘하여 자신과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은 대학생활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내·외부의 환경을 극복하고, 개인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Choi & Joo, 2016). 또한 대학생들이 자신의 진로결정에 있어 보다 자신감을 갖고 능동적인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대학생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고, 자기 주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진로를 준비하기 위한 스킬의 측면에서 셀프리더십의 함량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Kim & Jyung, 2012).

셀프리더십은 차별적이면서도 보완적인 세 가지 유형인 행동중심전략, 자연보상전략, 건설적인 사고전략으로 세분화되고, 이는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Carmeli et al., 2006; Prussia et al., 1998; Houghton & Neck, 2002; Neck & Houghton, 2006). 첫째, 행동중심전략에는 자기관찰, 자기목표설정, 자기보상, 자기처벌, 자기단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하고, 부정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을 억제한다(Neck & Houghton, 2006). 둘째, 자연보상전략은 자신의 역량과 자기결정의 감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며, 이를 통해 개인의 업무 또는 업무의 즐거운 측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업무와 관

련된 행동의 성과 향상 수준을 높일 수 있다(Houghton & Neck, 2002; Neck & Houghton, 2006). 셋째, 건설적인 사고전략은 개인의 생각 패턴을 통합하고 반복함으로써 낙관적인 사고의 패턴으로 변화시키고, 이를 활용하여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더 잘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다(Carmeli et al., 2006). 이러한 셀프리더십은 대학생으로서 당면하고 있는 과업 및 진로준비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Yang et al., 2015), 셀프리더십 교육은 21세기 끊임없이 변화하는 근로 환경에 인력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DiLiello & Houghton, 2006).

##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Bandura(1986)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주어진 과제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라 정의하였으며(Lent & Hackett, 1987), 자기효능에 대한 지각 능력이 높으면 업무 준비 및 수행 노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자신을 의심하는 학습자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의 실행을 방해한다(Bandura, 1982). 즉,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려운 과제나 상황에 놓였을 때 회피하기보다는 도전해야 될 과제 혹은 상황으로 인식하여 주어진 활동에 내적 흥미를 가지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Kim, 2011).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일반적인 진로의사 결정과 관련된 과제, 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개인의 효능감을 말하며(Kim et al., 2015), 진로에 대한 뚜렷한 목표와 자신감으로 자율성을 향상시키고, 성공경험을 통한 부당한 동기 부여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 대학생의 진로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Sung & Bae, 2015). Chon(2013)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을 만족스럽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실질적인 고용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Shin et al., 2012; Yang & Kim, 2008), 진로성숙(Keum, 2012; Kim & Lee, 2014; Park & Yoo, 2012), 진로탐색활동(Jin & Sung, 2012; Kim & Kim, 2014) 등 진로결정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진로 관련 요인과 진로준비행동 사이를 매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Hwang & Ko, 2015; Kim, 2011; Kim & Park, 2011; Lee & Hong, 2013).

## 3.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에 관해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Kim(1997)

에 의해서 진로분야의 필수적인 한 가지 탐구 영역으로 개념화가 시도되었다(Shin et al., 2012). 진로준비행동은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의미하며,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결정된 진로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Cho, 2014). 즉,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 및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위 등을 의미하며, 사회인지 진로이론 모형에서 최종 ‘수행’에 해당하는 종속측정치이므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Lee & Kim, 2010). 특히 대학생 시기의 진로준비행동은 학업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앞두고 있어 더욱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으며(Kang, 2015),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과 새로운 관련 변인을 대한 연구의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Choi & Joo, 2016).

진로준비행동의 대표적인 하위요인으로 정보수집활동, 도구구비활동, 목표달성활동으로 세분화되고 개념화되어 연구되어져 왔으나(Kim, 1997; Kim & Yoon, 2016; Oh, 2014), 일부 연구대상에 따라 차이점을 보이기도 하였다.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변인들로 셀프리더십(Choi & Joo, 2016; Hwang & Park, 2015), 진로결정수준(Hwang & Ko, 2015; Park & Lee, 201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Joo et al., 2015; Yang & Kim, 2008), 진로장벽(Kim & Park, 2011; Park & Kim 2009; Shin et al., 2012), 진로성숙(Chung, 2014; Ko & Sim, 2014; Seo, 2016) 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설정

본 연구는 조리전공 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학의 다각적인 교육지원과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에 보다 효과적인 진로지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앞선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흐름은 Fig. 1과 같다.

#### 1)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은 자신이 원하는 행동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기를 부여하고 탐색하는 과정이며(Carmeli et al., 200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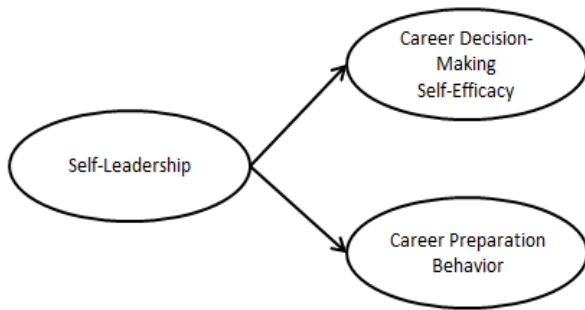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Oh, 2014).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체육대학 학생들의 진로탐색을 위한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인과 관계를 검증한 결과, 정(+)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ang, 2015). 또한 대학생의 셀프리더십(행동중심전략, 자연적보상전략, 건설적 사고전략)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자기평가, 정보수집, 목표설정, 진로계획, 문제해결)에 정(+)의 영향 관계가 있음을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검증되었으며(Lee & Hong, 2013), 전문대학생의 모든 셀프리더십(행동중심전략, 자연보상전략, 건설적 사고전략)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Youn, 2016). 앞선 연구 결과들에서 대학생들은 진로준비에 앞서 자기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셀프리더십의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셀프리더십이 강화될수록 학생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믿음이 강화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조리전공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중요한 선행변수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셀프리더십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셀프리더십과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은 개인의 일과 관련된 자기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이해 및 탐색, 결정, 실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위차원이다(Choi & Kim, 2012).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대학생은 타인의 지시나 통제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 자율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역량을 키워나가는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킴으로써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추진한다는 실증적 결과가 확인되었다(Yang & Song, 2015). 또한 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의 영향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진로선택과 진로준비행동을 실행하는데 내재적 변인인 셀프리더십이 중요하다고

하였다(Choi & Joo, 2016; Hwang & Park, 2015; Joo et al., 2015). 앞선 연구 결과들에서 셀프리더십의 강화는 진로준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실행에 옮긴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조리전공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진로준비행동에 중요한 선행변수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셀프리더십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 1) 셀프리더십 요인

본 연구는 셀프리더십을 ‘대학생 자신이 스스로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동기를 부여하며,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끌어 나가는 과정이며 행동’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셀프리더십의 평가항목은 Houghton & Neck(2002)가 개발한 RSLQ(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도구를 바탕으로 행동중심전략(5개 하위요인 포함), 자연보상전략, 건설적 사고전략(3개 하위요인 포함)으로 구분하고,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였다. ‘나는 공부나 일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다’의 항목을 포함하여 총 35개의 설문문항을 구성하고, 리커트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요인

본 연구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대학생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면서 성공적인 취업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강한 믿음 또는 확신’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Taylor과 Betz(1983)의 평가항목을 축소하여 다시 개발한 Betz 등(1996)의 CDMSES-SF(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 CDMSES-SF) 도구를 바탕으로 정보수집, 목표설정, 진로계획 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 등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고,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였다. ‘나는 조리·외식 직업분야에 대한 정보를 전문(교육)기관에서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다’의 항목을 포함하여 총 25개의 설문문항을 구성하고 리커트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 3) 진로준비행동 요인

본 연구는 진로준비행동을 ‘대학생이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직업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적극적인 진로탐색 및 진로결정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정의하고자 한

다. 진로준비행동의 평가항목은 Kim(1997)가 개발한 도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였다.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친구들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다’의 항목을 포함하여 총 11개의 설문문항을 구성하고, 리커트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 3. 표본의 선정 및 분석 방법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 연구의 목표달성을 위해 조리·외식 전공 대학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2015년 10월 1일부터 10월 15일(15일간)까지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설문문항을 포함하여 평가도구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서울, 경기, 경북, 경남, 전북지역에 위치한 대학의 조리전공 대학생(2년제 및 4년제)을 중심으로 평가하였으며, 신입생들보다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졸업예정자인 2학년(2년제 대학), 3~4학년(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비확률 표본추출법인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2015년 11월 한 달 간 실시되었다. 학생들의 설문에 앞서 설문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한 후, 자기기입식(self-administered)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설문지는 총 380부를 배포하였으며, 수거된 설문지에서 응답의 편중성향이 너무 강하거나 결측 값이 발견된 일부 설문지를 제외하여 총 299부(78.7%)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 SPSS 16.0을 사용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얻고자 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교육정도, 출신 고등학교, 대학만족도, 학과만족도)은 빈도와 백분율 등의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둘째,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에 대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 각 요인들 간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 변인들 간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검증은 실시하였다.

## IV. 실증분석

###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현황

본 연구의 가설검증에 사용된 연구 표본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로는 남성 159명(53.2%)과 여성 140명(46.8%)으로 나타났으며, 대학별로는 2년제 학생 192명(64.2%), 4년제 학생 107명(35.8%)으로 2년제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출신 고등학교는 일반고 229명(76.6%), 특성화고 70명(23.4%)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299)**

General information	General information	Frequency (N)	Percentage (%)
Gender	Male	159	53.2
	Female	140	46.8
Grade	College	192	64.2
	University	107	35.8
Graduate of high school	Regular	229	76.6
	Characterization	70	23.4
College & university satisfaction	Very satisfaction	28	9.4
	Satisfaction	117	39.1
	Usually	123	41.1
	Dissatisfaction	27	9.0
Department satisfaction	Very dissatisfaction	4	1.4
	Very satisfaction	36	12.0
	Satisfaction	128	42.8
	Usually	112	37.5
	Dissatisfaction	20	6.7
	Very dissatisfaction	3	1.0

조사대상자들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 이상이 145명(48.5%), 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 이상 164명(54.8%)인 것으로 나타나, 학교보다는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본 연구는 다양한 측정 항목들에 대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공통된 차원을 추출하는 요인분석과 한 가지 측정도구로 반복 측정했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를 산출하는 신뢰성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Varimax 방법을 사용한 주성분분석으로 고유값(Eigenvalues)이 1.0보다 큰 것을 요인화 하였다. 그 결과, 셀프리더십 요인은 적재치가 낮은 2개 항목인 ‘나는 학교나 일과 관련된 활동 중 불만족스러운 측면보다는 즐거운 측면의 생각들을 더 많이 한다’, ‘나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를 실제로 해결하기 전에 내가 사용할 방법을 머릿속으로 시연해 보곤 한다’를 제외하고, 총 33 항목에 대해 선행연구와 같이 총 9개 요인으로 명확히 도출되었다(Houghton & Neck, 2002). 이후,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을

상위차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 2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어 ‘행동준비전략’과 ‘자연보상 및 건설적 사고전략’으로 명명하였다. 내적일관성에 의한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도출된 요인의 Cronbach's  $\alpha$  값이 모두 0.700 이상으로 나타나 수용할 만하다고 판단하였다(Table 2).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요인적재치가 낮은 6개 항목을 제외한 총 19개 항목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3). 그 결과, 선행연구들과 동일하게 ‘직업정보’, ‘목표설정’, ‘진로계획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 등 총 5개 요인으로 명확히 도출되어 선행연구들과 동일하게 요인을 명명하였고, 도출된 5개 요인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이 모두 0.611 이상으로 나타나 수용할 만하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진로준비행동 요인은 요인적재치가 낮은 2개 항목을 제외한 총 9개 항목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총 2개 요인으로 도출되어 ‘정보탐색활동’, ‘목표달성활동’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척도의 신뢰성 평가 결과는 도출된 요인의 Cronbach's  $\alpha$  값이 모두 0.749 이상으로 나타나 수용할 만하다고 판단하였다.

각 요인들 간의 상호관련성의 정도와 방향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Table 5), 모든 요인들은 서로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r=.190\sim.580, p<.01$ ).

**Table 2. Result of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 for self-leadership factors**

Factor	Variable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	Cronbach' $\alpha$
Behavior focused	BF1	.653	1.096	12.176	.700
	BF2	.586			
	BF3	.724			
	BF4	.559			
	BF5	.644			
Natural reward & constructive thought	NC1	.844	3.692	41.026	.736
	NC2	.761			
	NC3	.678			
	NC4	.516			

KMO=0.860, Bartlett Chi-square=690.184, Sig.=0.000, Total variances(%)=53.202

**Table 3. Result of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 f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factors**

Factor	Variable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	Cronbach' $\alpha$
Occupational information	OI1	.736	1.180	6.213	.740
	OI2	.765			
	OI3	.597			
	OI4	.546			
Goal setting	GS1	.652	1.418	7.466	.726
	GS2	.761			
	GS3	.729			
	GS4	.487			
Career planning	CP1	.581	6.138	32.306	.799
	CP2	.614			
	CP3	.757			
	CP4	.774			
Problem solving	PS1	.546	1.007	5.298	.611
	PS2	.834			
	PS3	.753			
Self-appraisal	SA1	.647	1.804	9.492	.740
	SA2	.685			
	SA3	.684			
	SA4	.697			

KMO=0.876, Bartlett Chi-square=1,922.211, Sig.=0.000, Total variances(%)=60.775

3. 가설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1)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둘 이상의 독립변수가 하나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셀프리더십의 하위 2개 요인(행동중심전략, 자연보상 및 건설적 사고전략)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 5개 요인(직업정보, 목표설정, 진로계획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에 각각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 Table 6과 같다. 셀프리더십의 ‘행동중심전략’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직업정보( $t=2.079, p<0.05$ )’, ‘목표설정( $t=4.156, p<0.001$ )’, ‘진로계획수립( $t=2.140, p<0.05$ )’, ‘문제해결( $t=2.092, p<0.05$ )’, ‘자기평가( $t=2.150, p<0.05$ )’에 모두 정(+)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

**Table 4. Result of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 fo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actors**

Factor	Variable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	Cronbach 'a
Information search activity	IS1	.518	1.199	13.322	.749
	IS2	.797			
	IS3	.794			
	IS4	.575			
	IS5	.542			
Goal achievement activity	GS1	.738	3.826	42.507	.768
	GS2	.776			
	GS3	.758			
	GS4	.644			

KMO=0.834, Bartlett Chi-square=800.987, Sig.=0.000, Total variances(%)=55.830

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셀프리더십의 ‘자연보상 및 건설적 사고전략’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직업정보( $t=4.240, p<0.001$ )’, ‘목표설정( $t=2.170, p<0.05$ )’, ‘진로계획수립( $t=7.610, p<0.001$ )’, ‘문제해결( $t=4.614, p<0.001$ )’, ‘자기평가( $t=7.429, p<0.001$ )’에 모두 정(+)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셀프리더십의 2개 하위 요인(행동중심전략, 자연보상 및 건설적 사고전략)이 진로준비행동의 2개 하위 요인(정보탐

색활동, 목표달성활동)에 각각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셀프리더십은 진로준비행동 변량의 각 22.0%, 21.0%를 설명해주고 있으며, 셀프리더십의 ‘행동중심전략’은 ‘정보탐색활동( $t=2.239, p<0.05$ )’과 ‘목표달성활동( $t=2.014, p<0.05$ )’, ‘자연보상 및 건설적 사고전략’은 ‘정보탐색활동( $t=6.084, p<0.001$ )’과 ‘목표달성활동( $t=6.013, p<0.001$ )’에 모두 정(+)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조리전공 대학생들의 높은 취업을 유지와 이직률 감소를 위해서는 취업준비환경에서 스스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학생들 개인의 능력이 필요로 하고, 이러한 역량 강화는 젊은 학생들이 주방환경에 쉽게 적응하도록 돕고, 나아가 외식기업의 안정적인 인력수급과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리전공 대학생 셀프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강화와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으로 발전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학의 진로목표 전환과 다양한 진로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셀프리더십의 모든 하위요인(행동중심전략, 자연보상 및 건설적 사고전략)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요인(직업정보, 목표설정, 진로계획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선행연구(Bae & Sung, 2016; Lee & Choi, 2015; Lee & Hong, 2013)의 결과들과 일치하였다. 즉, 대학생들은 스스로를 관

**Table 5. Correlation**

Division	F1	F2	F3	F4	F5	F6	F7	F8	F9
F1	1								
F2	.561**	1							
F3	.291**	.353**	1						
F4	.351**	.294**	.580**	1					
F5	.381**	.523**	.510**	.491**	1				
F6	.303**	.374**	.210**	.190**	.294**	1			
F7	.377**	.516**	.470**	.437**	.563**	.281**	1		
F8	.350**	.455**	.450**	.404**	.465**	.260**	.427**	1	
F9	.336**	.446**	.396**	.342**	.489**	.196**	.410**	.558**	1

F1: Behavior focused, F2: Natural reward & constructive thought, F3: Occupational information, F4: Goal setting, F5: Career planning, F6: Problem solving, F7: Self-appraisal, F8: Information search activity, F9: Goal achievement activity.

**Table 6. Effect of self-leadership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factors**

	Variable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i>t</i>	<i>p</i>
		B	S.E.	Beta		
Occupational information	(Constant)	1.484	.276		5.382	.000
	Behavior focused	.182	.087	.136	2.079*	.038
	Natural reward & constructive thought	.362	.085	.277	4.240***	.000
	$R^2=.137$ , Adjusted $R^2=.131$ , $F=23.486$ , Sig.=0.000					
Goal setting	(Constant)	1.606	.283		5.665	.000
	Behavior focused	.374	.090	.271	4.156***	.000
	Natural reward & constructive thought	.190	.088	.142	2.170*	.031
	$R^2=.137$ , Adjusted $R^2=.131$ , $F=23.424$ , Sig.=0.000					
Career planning	(Constant)	.556	.272		2.046	.042
	Behavior focused	.184	.086	.127	2.140*	.033
	Natural reward & constructive thought	.640	.084	.452	7.610***	.000
	$R^2=.285$ , Adjusted $R^2=.280$ , $F=58.914$ , Sig.=0.000					
Problem solving	(Constant)	1.729	.256		6.757	.000
	Behavior focused	.170	.081	.135	2.092*	.037
	Natural reward & constructive thought	.366	.079	.298	4.614***	.000
	$R^2=.152$ , Adjusted $R^2=.147$ , $F=26.622$ , Sig.=0.000					
Self-appraisal	(Constant)	1.064	.233		4.561	.000
	Behavior focused	.159	.074	.128	2.150*	.032
	Natural reward & constructive thought	.537	.072	.444	7.429***	.000
	$R^2=.277$ , Adjusted $R^2=.272$ , $F=56.710$ , Sig.=0.000					

\*  $p<0.05$ , \*\*\*  $p<0.001$ .**Table 7. Effect of self-leadership factor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Variable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i>t</i>	<i>p</i>
		B	S.E.	Beta		
Information search activity	(Constant)	1.227	.267		4.591	.000
	Behavior focused	.190	.085	.139	2.239*	.026
	Natural reward & constructive thought	.504	.083	.377	6.084***	.000
	$R^2=.220$ , Adjusted $R^2=.215$ , $F=41.812$ , Sig.=0.000					
Goal achievement activity	(Constant)	.867	.279		3.113	.002
	Behavior focused	.178	.088	.126	2.014*	.045
	Natural reward & constructive thought	.519	.086	.375	6.013***	.000
	$R^2=.210$ , Adjusted $R^2=.204$ , $F=39.252$ , Sig.=0.000					

\*  $p<0.05$ , \*\*\*  $p<0.001$ .



리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고, 어려운 진로환경에서 즐거운 측면으로 발전시키고 극복함으로써, 자신의 진로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과 신뢰가 형성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였다.

둘째, 셀프리더십의 모든 하위요인(행동준비전략, 자연보상 및 건설적 사고전략)은 진로준비행동의 모든 하위요인(정보탐색활동, 목표달성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선행연구(Choi & Joo, 2016; Lee & Hong, 2013; Yang & Song, 2015)의 결과들과 일치하였다. 즉, 대학생들은 진로문제 해결과 목표달성을 위해 효율성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힘든 과제 또는 진로 결정 과정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함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사고의 전환들을 통해서 진로선택과 취업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탐색활동이나 실질적인 행동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앞선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벗어나,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과 진로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진로교육의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향후 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과 관련된 추가 연구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조리전공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뿐 아니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행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의 진로선택 과정 속에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획득과 진로준비행동을 실행하기 위해 셀프리더십은 우선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핵심 역량임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Kim et al.(2012)은 우리나라 고등교육 전반의 진로교육 운영체제, 구체적인 커리큘럼 및 콘텐츠는 어느 것도 학생들의 진로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에는 극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에 대한 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인의 문제해결력의 효능감을 키우고, 주어진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력을 발휘함으로써 새로운 문제해결전략을 혁신적으로 습득하게 하도록 셀프리더십에 대한 훈련 및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Kim & Jyung, 2012).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은 조리전공 대학생 셀프리더십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셀프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의 방향 전환이 절실하다. 즉, 단순히 높은 취업률을 강조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지원보다는 스스로 진로를 파악하고 선택하며, 진로선택에 대한 정보탐색이나 목표달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2년제 대학생의 경

우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의 기준에 맞춰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이 강화되고 있어, 짧은 기간 내 리더십 향상을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고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조리사는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음식 제공 시간에 대한 압박이 강할 뿐 아니라, 좁은 공간에서 상호 협력해야 하는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조리전공 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 역량 강화는 산업현장에서 자기관리와 통제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과는 대학생들이 공동체 생활에서 협력해야 하는 존재임을 인지시키고, 자기관찰, 자기이해, 자기통제를 기반으로 한 수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과업수행이나 과제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팀 프로젝트형 수업이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러한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게다가 조리전공 대학생들을 지역별 또는 전국 규모의 요리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팀워크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학생들의 레스토랑 운영이나 학교 내 음식 판매를 통해 얻은 다양한 경험은 셀프리더십의 역량 강화에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러한 조리전공 학생들의 셀프리더십 강화는 대학생활에서 진로를 스스로 파악하고 준비하며, 졸업 후에도 주도적으로 진로선택 및 행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수한 업무 환경에서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적응노력과 대처능력의 함양으로 외식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취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상대적으로 2년제 대학의 학생이 4년제 학생보다 평가 비율이 높았으며, 표본을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에 그 대표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셀프리더십과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들에 대하여 선행연구들과 같이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아, 조리전공 대학생들의 맞춤형 평가항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학생들의 셀프리더십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학문적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대학생들의 진로결정과 취업준비에 보다 명확한 진로지도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글 초록

본 연구는 조리전공 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과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data는 SPSS 16.0 Version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양한 결과들을 도출하였다. 첫째, 모든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행동준비전략, 자연보상 및 건설적 사고전략)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직업정보,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모든 셀프리더십 하위요인은 진로준비행동 하위요인(진로탐색활동, 목표달성활동)에 정(+)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조리전공 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의 강화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으로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조리전공 대학생)

## REFERENCES

- Bae, S. A., & Sung, S. Y. (2016).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ollege students' self-leadership,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9), 271-292.
- Bandura, A. (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2), 122-147.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Prentice Hall.
- Betz, N. E., Klein, K. L., & Taylor, K. M. (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1), 47-57.
- Carmeli, A., Meitar, R., & Weisberg, J. (2006). Self-leadership skills and innovative behavior at work. *International Journal of Manpower, 27*(1), 75-90.
- Cho, H. J. (2014). Difference and impact of university student' personal characteristics on career indecis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3*(4), 103-127.
- Choi, Y. K., & Kim, S. H. (201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3*(5), 2085-2097.
- Choi, I. S., & Joo, E. J. (2016). Influence of college life adjustmen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self-leadership and social support.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23*(6), 145-173.
- Chon, E. H. (2013). Design-based research on college students' career education program - Centering around the effects on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ollege student common problem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6*(3), 103-122.
- Chung, M. J. (2014). The effects of the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maturity on the employment anxiety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s majoring in airline service. *J of the Aviation Management Society of Korea, 12*(1), 81-104.
- DiLiello, T. C., & Houghton, J. D. (2006). Maximizing organizational leadership capacity for the future toward a model of self-leadership, innovation and creativity.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1*(4), 319-337.
- Han, M. H. (2011). A study to develop and to test the effectiveness of a career education program for undergraduates.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4*(2), 95-113.
- Houghton, J. D., & Neck, C. P. (2002).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testing a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 for self-leadership.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17*(8), 672-691.
- Hwang, J. Y., & Ko, M. N. (2015). A structural analysis of relations career decision statu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r college student: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stress coping strategy.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4*(2), 135-150.
- Hwang, J. Y., & Park, J. H. (2015). A structural analysis of 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related to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r college student.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4*(5), 73-101.
- Jang, T. J., & Moon, M. K. (2016). Factors influencing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Adm, 22*(4), 344-352.
- Jeong, E. I. (2010). Prediction of college students' subjective well-being by self-leadership, career obstacle, and career aspiratio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3*(4), 75-91.
- Jin, S. H., & Sung, E. M. (2012). The relationships among major Satisfaction, career search efficacy, career exploration

- behavior with college students in engineering department of a university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1(1), 1-18.
- Joo, Y. J., Go, K. Y., & Jung, Y. J. (2015). The effects of positive affect,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utcome expectan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n career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8(3), 65-83.
- Kang, H. W. (2015). The verification of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self-leadership for career exploration of students in physical education -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two year and four year college course. *Journal of Leisure, Park & Recreation Studies*, 39(1), 98-111.
- Keum, J. H.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arental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the career maturity of the pre-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J Korean Home Econ Assoc*, 50(7), 59-66.
- Kim, B. K., & Jyung, C. Y. (2012). The casual relationship amo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leadership,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areer motivation.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44(2), 49-71.
- Kim, B. W. (1997).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MS thesis). Seoul University 1-152, Seoul.
- Kim, D. J., Song, S. S., & Choi, H. C. (2015). An analysis on the impact of career vision school program on career decision-maki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4(4), 123-138.
- Kim, H. K., & Lee, J. J. (2011). A study on decision-making for their job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the students hotel food service industry or cooking. *The Korea Academic Society of Tourism and Leisure*, 23(6), 233-251.
- Kim, H. J., & Yoon, H. H. (2016).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s on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culinary ar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fficacy -.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22(4), 65-80.
- Kim, J. U., & Park, S. S. (2011). The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decision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4(4), 209-229.
- Kim, M. J. (2011). The medi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between attribution style and adjustment to college.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4(2), 139-154.
- Kim, M. J., & Kim, B. W. (2014). The relationship among university students' career self-regulation,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rational career decision making,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7(3), 27-45.
- Kim M., J., Kim, H. J., & Kim, D. J. (2012). A study on the mediating role of mathematics anxiety in the influence of self efficacy on mathematics skills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hospitality management.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18(4), 59-69.
- Kim, M. J., & Lee, H. K. (2014). The mediating effect of strengths use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 of strengths knowledge and career maturity among college student.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5(5), 1811-1830.
- Kim, Y. J., & Youn, C. S. (2016). Study on the mediate effect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and job-seeking stress on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7(4), 425-453.
- Ko, G. P., & Sim, M. Y. (2014). The structural relation of self-efficacy, job stress,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J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7(1), 19-38.
- Lee, H. J., & Kim, K. M. (2010). The effects of perceived career barrier of women whose career were interrupted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1(2), 623-640.
- Lee, J. C., & Hong, A. J. (2013).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self-leadership up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employability. *The J of Career Education*, 26(1), 69-92.
- Lee, J. W., & Choi, E. S. (2015). An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of university students' self-leadership, social support, career motivat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and career maturit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8(1), 33-54.
- Lee, Y. R., & Kim, N. J. (2013). A study on the influence

- of the self-efficacy on career maturity of college women: A mediating effect of the adjustment to college. *Korean J of Youth Studies*, 20(8), 97-120.
- Lent, R. M., & Hackett, G. (1987). Career self-efficacy: Empirical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0, 347-382.
- Neck, C. P., & Houghton, J. D. (2006). Two decades of self-leadership theory and research: Past development, present trends, and future possibilities.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1(4), 270-295.
- Oh, E. J. (2014). The medi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perceived by undergraduat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orean J of Youth Studies*, 21(4), 31-58.
- Park, J. H., & Kim, H. S. (2009).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mpus adjustment of the college students. *Korean J of Youth Studies*, 16(11), 125-144.
- Park, J. H., & Yoo, S. K. (2012). Exploring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work hop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lling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3(2), 254-560.
- Park, Y. K., & Woo, L. S. (2015). The study on the influence of career selection type of university students major in foodservice, class participati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Korea Academic Society of Culinary*, 21(4), 121-130.
- Park, Y. Y., & Lee, D. H. (2014). The role of job-search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of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mong college student.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3(2), 85-101.
- Pearce, C. L., & Manz, C. C. (2005). The new silver bullets of leadership: The importance of self- and shared leadership in knowledge work. *Organizational Dynamics*, 34(2), 130-140.
- Prussia, G. E., Anderson, J. S., & Manz, C. C. (1998). Self-leadership and performance outcome: The mediation influence of self-efficacy.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9, 528-538.
- Seo, K. H. (2016).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ulinary and foodservice management major students.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22(34), 59-69.
- Seo, K. H., Choi, W. S., & Lee, S. B. (2016). A study on differences among self-leadership,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ents majoring in cooking and food service. *Journal of Tourism & Leisure Research*, 28(5), 367-391.
- Shin, J. Y., Park, S. S., & Hyung, J. E. (2012).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5(1), 19-35.
- Song, Y. S. (2011). Exploration on required competencies for self-leadership in large Korean enterprise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13(3), 51-74.
- Sung, S. Y., & Bae, S. A. (2015).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adaptability.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22(9), 277-299.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 Yang, J. H., & Kim, B. W. (2008).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separation, career 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female college studen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1(2), 57-71.
- Yang, S. J., Shin, D. H., & Sing, Y. S. (2015). An analysis of educational needs on self-leadership competencies of college students: A case study of H college. *The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17(2), 241-266.
- Yang, S. J., & Song, Y. S.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mediation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22(12), 443-470.
- Yi, J. S., & Kim, K. A. (2012).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self-leadership on the employment strategies. *Korea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6(2), 19-39.
- Young, J. J., Kyung, Y. G., & Jung, Y. J. (2015). The effects

of positive affect,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utcome expectan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n career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8(3), 65-83.

통계청 [www.kostat.go.kr](http://www.kostat.go.kr)

고용노동부 [www.moel.go.kr](http://www.moel.go.kr)

---

2017년 02월 09일 접수  
2017년 02월 19일 1차 논문수정  
2017년 02월 20일 논문 게재확정